

일본연구소 연구집담회 2009년 12월 9일

후조시는 말할 수 있는가? ‘여자’ 오타쿠의 발견

발표: 김효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 교수

토론: 신하경 숙명여대 일본학과 교수

발표: 앞으로의 연구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의 차원에서의 발표입니다. 후조시는 이중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후조시 본인에 의한 후조시론의 경우는 그녀의 취향을 커밍아웃한다는 점에서 여자로서의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러지고 심지어 같은 후조시들로부터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한편 남성에 의한 승인을 거친 후조시론은 그런 위험부담이 없다는 점, 그리고 외부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그녀들에게 있어 일정한 안심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한 것이나, 그 안에서 그녀들의 주체성은 사라지게 된다 즉 어느 쪽이든지 그녀들은 말할 수 없다. 이 때 후조시들의 침묵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특히, 그녀들이 후조시 본인에 의한 후조시론을 거부하는 경향은 스스로 주체가 되기를 거부하고 외부, 즉 남성의 시선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녀들의 반동성과 보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로 후조시들이 침묵하는 것은 외부에 대해서일 뿐으로, 내부적으로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후조시만의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즉, 후조시 커뮤니티 내부의 자유로움과 여성으로서의 존재의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성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이중성이 바로 지금 후조시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일 것이다. (발표문 참조)

토론: 아즈마 히로키가 오타쿠 문화의 집중 필요성 강조하기 시작하는데요. 남성오타쿠론자라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중요한 것을 지적. 문화의 생산과 유통이 무시못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말한 것입니다. 사소설과는 다른 소설류가 나타나는 점등이라 할 수 있는데요. 2차 창작이나 가상공간의 확장이랄까 이런 것들을 기존의 문화 생산 유통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들이 등장한 것을 주목한 것이지요. 학문적 시선으로 문화영역을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것이지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스피박의 질문에서 후조시는 말할 수 있는가를 따왔는데, 과연 그것이 따올 수 있는 질문인지 의문입니다. 서발틴을 말할 때 문제구성은 여성주체들이 말할 수 있는가라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와 오타쿠와 후조시와의 관계가 과연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대중론의 맥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담론 자체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말이지요. 기존질서라는 것이 있고, 그에 수렴되지 않는 가치체계의 등장에 어떤 배열점이 있으며, 문제제기가 나타나는지 담론공간을 살펴보는 것이 대중론, 대중의 표상의 측면에서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타쿠론은 오타쿠에 의해 담론화되고 있는데 비해, 후조시론은 후조시들에 의해 담론화되어 있지 않다는 논의로 저는 들었는데요. 저는 약간 다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오타쿠들 역시 커밍아웃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세 번째 질문은 BL류가 호모섹슈얼적 관계가 아니라 이성애적 관계를 그대로 동성관계에 적용시킨다는 점입니다. 소녀만화적 변형으로서 나온 BL이라는 장르와 후조시론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후조시는 검담이랄까 소년점프로 대표되는 만화를 좋아하는 여성들을

포함하는 것이 후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L을 좋아한다고 해서 후조시라고는 바로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젠더 폴리틱을 끌고 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표자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스피박을 패러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스피박의 질문이 철학적이라는 점에서 동의를 하지만, 이를 패러디해서 생각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오타쿠론과 후조시론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후조시론은 이성애적 규범에 맞지 않는 비정상성이라는 존재증명을 요구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타쿠란 성적 취향이 제도화된 것과 밀접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여성성이라는 근원적 질문이 들어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웃집 801양을 고른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텍스트가 아니지만, 사회적 파장을 우선시해서 고려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BL에 대한 이해방식에 약간 저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녀만화의 장르적 특성을 갖고 왔다고 해도 요즘에는 약간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후조시론에 있어서 과연 페미니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생각은 저도 조금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로어질문: 한국의 후조시 소위 부녀자는 일본과의 후조시론과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당당하게 자기 취향을 밝히는 것이랄까요. 후조시들의 주장르적 하나인 백합물이 빠진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있지만 후조시 내부의 세대 차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백합물에 대해서는 최근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딜까지 갈것인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플로어질문: 오타쿠안에 여성의 자리가 없었다고 할 때 생물학적인 여성인지, 젠더로서의 여성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듯 합니다.

답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일 듯 합니다.

플로어질문: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듯 한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는지요?

답변: 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동인 사이트들을 운영하기도 하구요. 일본 시장이 워낙 크다보니까요.